

News

은행권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폭 2조원대로 관리"

연합뉴스

은행권이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 올해 8월 금융당국의 경고 속에 은행권은 신용대출 자율 규제에 돌입... 은행들은 주력 신용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 · 우대금리 축소.... 고신용자 기준으로 연 소득 대비 대출 한도는 200%에서 150% 이내로 작아져...

마이데이터 1차 예비허가에 5대은행·네이버·카카오 등 신청

조선일보

마이데이터 사업에 1차로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35곳에 달해... 국내 5대 은행 모두 참여...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출사표... 마이데이터 심사는 예비허가 심사(2개월)와 본심사(1개월)로 나눠 진행... 금융당국은 내년 초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 부여 예정...

5대금융지주 통합 인증서 추진... 빅테크 대항 연합전선 꾸리나

파이낸셜뉴스

5대 금융지주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인증서 통합 작업에 나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한 빅테크와 경쟁 기반 마련... "특히 빅테크 등이 금융 및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자인증서 시장도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의미가 있다"

빚투·영끌·전셋값 급등에...9월도 가계 '빚잔치'

국민일보

가계대출이 9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폭(9조6천억원)으로 늘어... 공모주 청약 및 전셋값 급등세 영향...기타대출 증가세는 잦아드는 모양새...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 코로나19사태와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 영향...

'보험료 카드납부' 거절하는 보험사... 결제수수료, 얼마길래

머니S

보험료의 카드결제 비중이 여전히 낮아 소비자 불편이 지속...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3.9%, 손해보험사는 22.7%에 그쳐... 보험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면 보험사의 사업비가 인상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

삼성생명, 신입 설계사 이탈 어찌나...반전 카드 '사활'

데일리안

삼성생명 신입 보험설계사 3명 중 2명 가까이가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 삼성생명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이 38.8%로 최저...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 상품을 다루는 특성 상 생보업계는 실적에 있어 설계사 역량의 중요성이 여전히 크다"

유동성 관리 나선 증권사 CP 발행 확대

파이낸셜뉴스

주요 증권사들이 만기 3개월 이상의 기업어음 발행을 늘려...8개 증권사 CP 잔액은 9개월만에 44% 증가... CP발행잔액 규모는 신금투, 메리츠, 하나금투 순... "지난 3~4월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라는 학습효과로 선제적으로 조달에 나서고 있다"

국감장 선 대신·NH증권 대표... "외압 없었다"

뉴스is

라임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사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 대표가 출석...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는 옵티머스 관련 외압 의혹 부인...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는 판매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연관은 없다고 부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